



2015인문 순창고추장 비빔밥

순창장류축제 경제부문 대상

'2016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에서... 올해 10월 13일~16일 열려

순창장류축제가 '2016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축제경제부문에서 대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은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관해 전국 2천여 개의 축제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문체부 선정 3년 연속 대한민국 우수축제 선정에 이은 결과라 의미가 더욱 크다.

장류축제는 고추장 원장, 청국장 등 지역의 전통자원을 축제의 중심테마로 해 30가지 체험거리와 37가지 볼

거리 등으로 연결해 관광객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준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 지역 주민들의 대규모 참여를 통해 축제를 만들고 고추장 등 장류는 물론 농특산물 판매 등을 통해 지역 경제 견인 역할을 한 점도 인정받았다.

특히 지역향토자원을 세계적 소스를 위해 추진한 소스마니박람회와 토굴형 저장고에서 진행된 다양한 전시 행사도 순창 장류축제의 독특한 행사로 평가됐다.

황숙주 군수는 "장류축제는 민속 고유의 자원인 전통장류를 테마로 해

다양한 체험거리, 볼거리를 만들어낸 전국 유일의 축제"며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덕분에 이룬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올해에는 장류축제를 전국 최우수 축제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정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올해 순창장류축제는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간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일원에서 펼쳐지며 전통고추장 원장, 간장 등 전통장류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소스를 소재로 다양한 맛과 멋의 향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순창=구인규 기자

남원시, 내년 82개 2조3930억 국비확보 추진

'2017년 국가예산 발굴 신규사업 2차 보고회' 개최

남원시는 '2017년 국가예산 발굴 신규사업 2차 보고회'를 16일 이환주 시장 주재로 개최하고 국가예산확보 신규사업 발굴과 예산확보에 시정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업은 82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2조3,930억원(국비 22,358, 도비 569, 시비 847, 기타 156)이 소요되며, 이는 최근 남원시가 추진한 신규사업 규모 중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향후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SOC분야 대형 신규사업이 돋보인다. 시는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추진이 더딘 새만금~정읍~남원 국도건설(8,702억원), 담양~순창~남원 연결 국도 24호선 도로 확·포장사업(2,100억원)과 남원~장수 고속국도건설사업(6,732억원)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한다.

이에 시는 4월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지역정치권과 공조하여 총선, 대선 공약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SOC기반을 더

욱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관광분야에는 지리산 산악철도 사업 도입(291억원)과 합과우유원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서부내륙권 관역관광개발사업인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307억원)이 부자된다.

농업환경 개선분야도 지속적으로 투자된다. 대신면 금성리, 옥율리 일원에 농업용수기반을 확충하는 금강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144억원)이 추진되고, 대강면 방동리일원에 배수로를 정비하는 방동지구 배수개선사업(62억원)도 국가예산사업으로 추진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리산 고로쇠 수액채취 본격 시작

뱀사골·달궁·반야봉 등에서 4월 초순까지

해발 600~1000m의 심산유곡 지리산 뱀사골, 달궁, 반야봉 등에서 '신비의 물 고로쇠' 수액채취가 본격 시작되어 4월 초순까지 계속된다.

남원시 산내면 뱀사골, 달궁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수액채취가 본격화됨에 따라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주민이 밀려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리산 고로쇠약수는 고지대인 뱀사골, 반야봉 일원이 고로쇠나무의 군락지로 형성되어 고로쇠약수의 원산지라 불리우고 있으며, 맛이 달콤하면서 향이 좋고 청주 빛처럼 맑은 것이 특징이다.

고지대에서만 생산되는 지리산 고로쇠는 수질이 뛰어나고 단맛이 강하다. 빼에 좋아 '골리수'로 불리는 고로쇠는 이노와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로쇠나무는 단풍나무과의 활엽수 수액을 가진 나무로서 종류가 다양하며, 단풍나무와 고로쇠나무는 경침무릅부터이고, 자작이나 층층나무는 곡우 무렵에 수액

이 나온다. 다래수액은 늦은 봄까지 가능하고 삼나무는 4월 중순께 수액을 받는다.

이중 최고의 약성을 지닌 고로쇠나무는 단풍나무과로 다섯잎의 갈라짐이 별처럼 선명함을 가지고 있고 지리산 뱀사골과 달궁, 반야봉 등지에서 군락을 이루며 '지리산 고로쇠'로 불리워지고 있다.

고로쇠 약수는 우수를 전후해 해발 600m이상 뱀사골 인근에 서식하는 지름20cm이상의 고로쇠나무 7만여 그루에서 채취하는데 해풍이 미치지 않는 지역 특성상 전국 최고의 품질로 각광 받고 있다.

지난해 고로쇠 채취기간 동안 100여 농가가 10여여원의 농가소득을 올렸다.

구입문의는 남원시 산내면사무소(636-3004), 뱀사골고로쇠영농조합(625-9015)으로 하면 되며, 가격은 1박스당 5만원이다.

한편 제28회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축제는 오는 3월 5일(토) 10시 산내면 뱀사골(반선관광 주차장)에서 개최된다. /남원=유영철기자

지역특이성

고창군생활개선연합회 '아름다운 마을' 봉사활동

고창군생활개선연합회가 장애우와 정서적 교감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생활개선연합회 회원 30여명은 16일 상하면 소재 사회복지시설 '아름다운 마을'을 방문 장애우 50여명에게 떡국 제공과 더불어 선물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고창군 생활개선연합회는 지난 2007년부터 10년째 아름다운 마을 방문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용비용은 지난해 생활개선회원들이 자연 정화활동 일환으로 수거한 폐농약병을 판매한 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봉자 회장은 "우리들의 작은 정성에도 고마워하고 받게 되어주는 그들에게 오히려 고마움과 따뜻한 정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생활개선회원들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봉사를 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집합교육 개강식

고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한국어집합교육 개강식 및 방문교육서비스 설명회를 실시했다.

설명회는 16일 결혼이민자와 한국어 강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강당에서 열렸다.

고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올해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한국어전문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오는 12월까지 단계별 한국어교육 및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미있는 한국어반, 국적취득을 위한 한국어반 등 맞춤형 특별심화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지리적 여건으로 다문화센터에 나오지 못하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거점반과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아카데미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방문교육서비스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접근성 문제로 센터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선정해 전문교육을 수료한 지도사가 직접 생활현장을 찾아 한국어교육과 가족상담, 부모교육 및 자녀지도 등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총 44가정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날 개강식 후에는 고창소방서와 연계해 다문화가정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이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강연회 센터장은 "한국어집합교육과 방문교육서비스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문화가정과 센터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면서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주는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은 올해에도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 직업훈련교육과 학력취득지원, 청소년진로지원, 고학나들이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전통장류 한식양념 소스화 나서

경민대 김수희 교수 초청 교육... 시장 동향·전략 등 설명

순창군이 전통장류 소스산업화 행보에 나섰다.

군은 지난 15일 한식양념소스를 체계화한 경민대 김수희 교수를 초청해 한식양념소스에 대한 기초이론과 소스제조 요리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간장, 고추장 원장 등 5가지 발효장을 모체양념장으로 해 한식양념소스를 체계화했다.

이날 교육은 순창고추장 기능인 20여명이 참여했다. 김교수는 교육을 통해 소스시장 동향과 장류기업체에서

소스화로 나가기 위한 전략 등을 설명했다.

또 장류소스상품화에 맞춰 초간장양념장, 고추장계장, 원장양념장 등 6가지 한식양념소스 제조에 대한 실습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순창군이 올해 소스산업화를 군의 역점사책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통장류 제조업체들이 소스산업화 방향에 적극 대응하고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순창=구인규 기자

『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

군민이 신뢰하는 책임의회
council.jangsu.go.kr

군민이 신뢰하는 책임의회 장수군의의회

◇ 제262회 장수군의의회 임시회 개최 안내

○ 일 정 : 2016. 2.15(월) ~ 2.19(금) << 5일간 >>

○ 주요내용

- 2016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등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심사등

『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

남원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이 2월부터 새로 실시된다.

그동안 장애인 보장구 이용이 늘어나면서 수리비용이 장애인 가구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수리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간 20만원 이내, 차상위계층은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리금액의 10%, 차상위 계층은 수리금액의 20%, 등록장애인인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주요 수리내용은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휠체어의 타이어교체, 브레이크수리, 휠패드 교체 등이다.

보장구 수리는 사)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에서 민원접수를 한 뒤 현장을 방문해 처리한다.

한편, 2015년 현재 남원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휠체어는 모두 660여대이다.

남원시는 위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장애인 생활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